

현대 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수

A Study on the Maximalism Depicted in the Contemporary Costumes

Hyo Ji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3. 1. 16. 접수; 2003. 3. 29.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Maximalism depicted in contemporary costumes of new millennium. This is done by analyzing and examining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fashion in the few years of 21st century. The fashion trend of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was coexisted conflicting factors with ultramodern factor and past recurrent factor. For that reason, new millennium is to be existence background of Maximalism style in contemporary costumes.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aximalism was regarded as characteristics of the Glocalism, fusion style, bobos. Glocalism means a compound word of Globalism and Localism, and used various fields of policy, economics, society etc. Consequently, the aesthetic formativeness of Maximalism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was investigated as the 'Romantic Hippie Look' and 'Romantic Sports Look'

- 1) Romantic Hippie Look : New millennium fashion trend is affected by hippie style of 1970's. That is major reason that the antiwar consciousness of 9.11 terror, USA-Afganistan war and the economic depression is similar to 1970's situation. Accordingly, fashion trend is developed into bright, light, romantic style and fashion designers chose materials with flowers, butterflies, dragonflies pattern. Because the clothing of these material reflects well modern people's feeling to escape misgivings, unrest of political terror, war etc. The characteristics of hippie style expressed freedom as the greatest merit was raised new trend, so called 'Romantic Hippie Look' on new millennium. That is, the romantic hippie look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is depicted as the formative beauty of the multiculturalism and nationalism.
- 2) Romantic Sports Look : The beginning of new millennium, many fashion designers intend to graft the details of sports wear on order made or ready made clothing and try to show luxury and cheerful fashion design with combination of sporty and romantic factors. Accordingly, theses fashion trends expressed 'Romantic Sports Look' with a harmony or disharmony of unusual factors. The fashion trend of new millennium centering around special cities like New York, Paris, Milan moved to various regional culture. Accordingly, the features of fashion depicted not unique theme but multiplicity of the clothing of dissimilar style or material by the mixture of 2 or 3 factors like the fus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the combination

[†] 교신저자 E-mail : aehyojin@chonbuk.ac.kr

of past and present of details. That is, the romantic sports look of the contemporary costumes is depicted as the formative beauty of the multi-functional and crossover.

Key words: Maximalism(맥시멀리즘), Glocalism(글로컬리즘), fusion style(퓨전스타일), bobos(보보스), Romantic hippies look(로맨틱 히피룩).

I. 서론

21세기 초 몇 년간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비 의식은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욕구나 편의주의적 소비욕구에서 벗어나 어떠한 제품에 내재된 이미지를 함께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에 의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는 신소비계층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20세기 말과 차별화 되는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유행의 양식에만 따르던 이전의 상품마케팅이 아닌 신소비계층에 의하여 유행양식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패션 속성의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패션은 단순한 유행상품이 아니라 문화코드로 인식되었다. 특히 패션에 있어서 최첨단적인 요소들과 과거 회귀적인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새 천년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최근 패션에 맥시멀리즘(Maximalism)의 양식이 표출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990년대 대표적인 패션 경향이었던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한 라인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은 새 천년 사회분위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장식과 재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요소들을 디자인에 도입함으로써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몰입하였고 그 특징을 새 천년의 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정신세계, 생활감각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새 천년 패션에서 나타난 맥시멀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두었다. 그리고 맥시멀리즘이 현대 패션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소들로 패션에서 어떠한 의미로 조명되고 있는지 고찰 분석함으로써 패션에서의 맥시멀

리즘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패션 속성을 이해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새 천년 들어 현대인에게 내재된 정신철학이 패션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객관적인 분석자료는 유사 연구분야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타당성을 줄 수 있음에 그 의의를 두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문헌에 의한 연구 방법에 의해서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2000년 이후 최근까지의 약 3년 동안의 현대 패션으로 브랜드의 카다로그와 잡지, 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과거로의 회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패션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가 맥시멀리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고찰되었기 때문이다.

II. 맥시멀리즘의 형성 배경

1. 맥시멀리즘의 사회문화적 배경

1) 글로컬리즘(Glocalism)

새 천년의 특징으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혁명을 주축으로 한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글로컬리즘을 들 수 있다.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지역중심주의(Localism)가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글로컬리즘은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즉 기존의 세계통합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인간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가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부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역중심주의는 지역중심주의대로 일정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면식(面識)관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

대에 지나치게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뒤 떨어진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세계통합주의·지역중심주의, 동질화·이질화 등 이분법적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면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21세기가 지향하는 글로벌리즘이다¹⁾. 무엇보다도 이분법적 대립의 과감한 경계허물기는 현대인들에게 새 천년 문화코드인 글로벌리즘의 자연스러운 수용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2002년 역사학 국제회의에서 차하순 서강대 명예교수는 '세계화는 최근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고대부터 지속되어 온 개념이라면 서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글로벌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²⁾.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예술에 있어서도 제 3세계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리즘의 미술적 모색을 시도하였다. 2002년 8월 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미술관에서 열렸던 '컨테이너전'이 바로 그것이다. 즉 컨테이너는 국경을 넘나들며 상품을 이동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교류의 수단이자 생존의 방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³⁾.

2002년 6월 6일부터 20일까지 삼지 스페이스에서 열렸던 'PIPA 2002: LOCAL Cup'전 역시 6월 월드컵의 해방구 이미지로서의 글로벌리즘과 80년대의 한국의 저항과 헌신을 의미했던 로컬리즘의 문화적 대응을 승화시켜 글로벌리즘의 입장을 제시한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충돌할 수 있는 개념이 새롭게 어울어져 보다 승화된 세계화의 현상으로서의 글로벌리즘은 문화현상을 가장 민감하게 수용하는 패션을 통해서도 표출되고 있다. 즉 패션에서 맥시멀리즘 양식이 형성될 수 있는 새 천년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고찰할 수 있다.

2) 퓨전(Fusion) 스타일

원시 시대 이래로 산업화되기 이전까지 만물은 무엇이든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상호 침투하고 화합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생각이 만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세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흔히 3S의 규격화(Standardization), 전문화(Specification), 특수화(Specialization)를 추구해 온 사회 경제 논리는 당연히 존재간의 상호작용과 전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⁵⁾.

이렇게 각자의 분절된 영역들이 전문적으로 완전성을 추구해 온 것이 산업사회의 역사이다. 하지만 이제 고립된 영역들은 자신만의 완벽성을 의심하면서 분야간의 틈새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런 간극을 메우고자 서로 융화하여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만물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을 찾으며 서로가 서로를 퓨전화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계 자체를 지니지 않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동양과 서양, 그리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의 접근과 공유가 가능해진 지금, '퓨전'이라는 이름하에 건축, 패션, 요리, 인테리어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동서양의 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녹인다'는 뜻의 퓨즈(fuse)를 명사형으로 만든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음식과 패션, 인테리어를 비롯해 모든 문화 예술의 장르들이 혼합, 변화되는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 몇년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하여가를 부를 당시 퓨전 스타일 음악이 유행했고, 청담동 곳곳에는 퓨전 스타일 레스토랑이 성행했으며 패션에서도 서로 다른 분위기의 옷들 끼리 섞어 입는 퓨전 스타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퓨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의 키워드도 미래를 주도할 신소비 집단들의 복합화된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⁷⁾.

이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하나

1) <http://100lycos.co.kr/entry/38/765038.asp?where=category&dme=030503002>

2) <http://news.yahoo.co.kr/headlines/en/20020815/jo/jo2002081571731.html>

3) 국민일보, 2002년, 7월 28일.

4) 국민일보, 2002년, 8월 4일.

5) 전승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단일성에서 퓨전과 크로스오버", 동아일보, 2000년 11월 20일.

6) 전승규, *op. cit.*

7) "미술-다양한 트렌드 선보인 한 해", <http://210.95.205.99/yearbook/2001/misul/A1-1-5.htm>

로 모여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특성만을 지닌 디자인보다는 다목적용으로써의 디자인에 관심이 모아지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형성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되었다.

3) 보보스(Bobos)족

보보스란 정보시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지배 엘리트 계층을 일컫는 말로 미국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이자 <뉴스위크>의 객원 편집위원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의 책 <보보스 인 파라다이스(Bobos In Paradise)>가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면서 생긴 신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새로운 정보시대의 엘리트 계층은 부르주아 보헤미안(Bourgeois Bohemian)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⁸⁾. 즉 보보스는 '부르주아와 자유의 상징이며 예술감각을 추구하는 보헤미안을 합성한 신조어'로써 1960년대의 창조성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중요시했던 히피와 부와 성공을 중요시했던 1980년대 여피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 세대를 풍미하는 용어로 쓰인 말들은 그 단어로서 문화와 패션을 모두 포함한다. 2000년대에 이들은 부르주아의 야망과 성공, 보헤미안의 반항과 창조성이라는 이중적 성향을 가진 디지털 시대의 신흥 귀족을 일컫는 말로 이들은 광고나 패션 등 대중문화나 소비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보스는 극단주의를 넘어서 제 3의 길을 추구하며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띠고 너무 개인적인 성향이 짙지만 과소비를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자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첨단정보화 시대의 젊은 고소득층으로 뉴서티(New Thirties)⁹⁾라 불리는 이들은 일명 '빌게이츠 룩'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즐겨 입게 되었

다. 새 천년 이후 자유로운 히피 정신을 강화한 감성적인 보보스 룩이 성공한 남자들의 패션 코드로 자리잡았다.

언뜻 보기에 조화가 되지 않은 패션철학에서 그들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 수많은 것들 중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의식주를 선택하고, 예술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지어 환경 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진다. 자신들의 스타일과 생각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타인을 배타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일을 좋아하지만 구속되지는 않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을 누리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보보스들의 사고 방식이다. 고급스러움과 개성을,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약간의 욕심이 많은 그들만의 개성이자 철학이다. 그들은 또한 쇼윈도에 세팅된 정형화된 스타일을 거부하고 정장차림에 의외로 스니커즈(sneakers)¹⁰⁾를 신고 다니는 남성들이 많다. 정장에는 꼭 구두를 신어야 한다는 상식을 깨뜨리는 일명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다¹¹⁾.

즉 보보스족 스타일은 새 천년 패션에서 사회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미가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2.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 형성 배경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패션 경향의 첫 번째 특징은 1970년대 히피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은 9.11 테러와 미국-아프가니스탄 간 전쟁 무드, 그리고 이에 대한 반전외식 등이 1970년대 상황과 비슷하며 거기에 경제불황이라는 점까지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패션 트렌드도 닮은 꼴로 나타나고 있는데 테러와 전쟁 등의 불안과 어둠을 떨쳐버리고 싶은 심리가

8) Fashionbiz, 2001년 5월, p.94.

9) 우리나라의 경우 보보스족을 일컫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일과 여가를 구분해서 즐길 줄 아는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남성들이다. 특히 이들은 재력을 겸비한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히피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즉 고학력, 고소득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신흥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정장을 입을 때에도 부담없고 캐주얼 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캐릭터 정장을 선호한다.

10) 원래 '스니커즈'는 밑창이 얇고 가벼운 운동화를 통칭하는 말로 디자인과 질러가 다양하고, 신고 벗기도 편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11) 일간스포츠, 2001년 10월 29일.

12) 중앙일보, 2002년 1월 17일.

이입됐기 때문인지 패션은 어느 때보다도 밝고 가볍고 낭만적이다. 특히 9.11 테러사건 이후 다소 침울해진 분위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꽃과 나비 프린트는 올 시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선택한 최고의 아이템으로 꼽혔으며 패션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꽃무늬의 인기가 상승하기 시작한 가운데 올 들어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나비와 잠자리 등 곤충들이 모티브가 된 의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³⁾.

더욱이 전쟁과 불황이라는 우울한 화두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의 갈등과 이중적이분구도로 형성된 냉소적 분위기를 탈피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공존시킴으로써 새 천년 패션의 현대적인 조형언어로써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거부의 반응으로써 논리적인 모든 것과 상식적인 이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러한 반항의 태도는 획일화된 규칙을 벗어나 개인적인 특성을 증시여기는 개성화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는 패션을 통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장르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기상천외하고 부조화스러운 이미지로 표출되었다¹⁴⁾.

90년대 대표적인 트렌드인 미니멀리즘에 실증난 새 천년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패션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맥시멀리즘은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예술 전통을 말하며 미니멀리즘이 축소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맥시멀리즘은 확대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¹⁵⁾는 문학에서의 정의와도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 천년 패션에서는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이 소재의 다양화와 로맨틱한 문양 그리고 디테일의 확대와 수공예적인 기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구슬 자수 장식으로 꾸며진 재킷, 퍼프형 소매가 귀여운 블라우스, 날아갈 것 같은 쉬폰이나 레이스 스커트, 흐드러진 꽃무늬가 화려한 원피스,

오래 입어 편안해 보이는 진 재킷과 바지 등이 새 천년 이후 패션의 중요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과 병행하여 패션의 경우 인간의 수공 기술로 정성껏 만들어진 제품에 호감을 느끼고 가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 맥시멀리즘의 형성 배경이 된 것이다. 즉 인공적인 느낌의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만큼은 거칠게 처리되고 손으로 스티치를 넣고 짓고 오려붙인 장식들이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

바로 이러한 꿈과 낭만 그리고 환상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들이 새 천년 이후 현대 패션에 공존함으로써 표면화된 어두운 세계의 이면에서 희망과 평화로움을 공유하는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이 형성되었다.

Ⅲ. 새 천년 패션과 맥시멀리즘

1. 로맨틱 히피 룩(Romantic Hippies Look)

1) 다문화주의 조형성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Multiculturalism)란 민족 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 개념으로 하나의 국가 내지 사회 속에서 복수의 다른 인종·민족·계층 등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 각자의 독자성을 육성하려는 입장이다. 미술에서의 다문화주의란 백인 중심의 유럽문화적 전통만을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는 특히 모더니즘이 갖는 순수주의 내지 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시각으로 현대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개념은 1980년대 말경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미국과 유럽에 이민으로 유입된 유색인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종 차별적인 사건이 부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적 기술의 발달 덕분에 국경을 넘어서 정보와 사고의 즉각적인 전달이 가능해진 점도 다문화주의의 촉매 역할을 했다¹⁶⁾.

13) 국민일보, "전문가들이 말하는 패션 경향", 2002년 02월 16일.

14) <http://style.chosun.com/site/data/html-dir/2001/02/01>

15) 김옥동,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http://www.kcaf.or.kr/zine/artspaper92-01/19920103.htm>

이것은 여성문화, 소수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지는 의미로 어떤 공통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편에는 단순히 자유주의, 다원주의나 세계주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종, 성별, 성격, 취향에 따르는 급진적 분리주의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 패션계의 또 다른 특징인 다문화주의는 스페인, 아메리칸 인디언, 터키, 중동 등 에스닉풍(민속풍)¹⁸⁾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과거 파리, 런던, 뉴욕 등 특정 도시 중심으로 이



〈그림 1〉 Alexander McQueen, 2000/01 A/W.

뤄지던 패션 디자인이 지역과 문화로 옮겨가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¹⁹⁾. 의상은 이국적인 패턴과 아이템, 디테일을 응용해 독특한 이국의 정서와 더불어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표면화되면서 유행요소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다²⁰⁾. Alexander McQueen의 패션 작품(그림 1)의 경우 그로테스크한 민속적 이미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진소재 사용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한다. 더욱이 19세기의 고전적 실루엣이나 퍼프 소매 등의 디테일, 마사이(Masai)족의 은제(銀製) 장신구 등의 로맨틱한 경향의 표현은 최근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패션 작품을 통해서 다문화주의의 정서를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70년대 히피문화를 연상시키는 에스닉한 스타일이 도시적인 보헤미안 스타일, 로맨틱한 보헤미안 스타일 등 현대적이면서 여성미를 강조하는 히피 룩²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과 테러, 경기침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로 과거 지향적 복고풍이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테러와 전쟁 등 불안과 어둠에서 벗어나 좀 더 안정적이고 밝은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패션에서는 로맨틱²²⁾이라는 화두로 이입되었다.

그리하여 자유로움을 최대의 가치로 꼽았던 히피 패션이 새 천년 '로맨틱 히피 룩'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된 것이다. 로맨틱 히피라는 것은 60년대의 히

16)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8, p.79.

17) <http://canada.hanmir.com/canada/intro/multiculture.php>

18) 에스닉(ethnic) 스타일이란 세계 여러 민속이나 민족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국적인 패션으로 때로는 민속적(folklore)이라는 것과 동일시되지만 에스닉 스타일은 종교적 의미가 함축된, 즉 비그리스도 지역의 민속복을 말한다. 1970년대 한창 유행했던 스타일로 짐시룩, 인디언룩, 유럽 농민의 의상에서 비롯된 패턴트룩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인도풍 아라비안 무늬, 페르시아인 프린트 등이 중심 아이템이다.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p.69.

19) 스포츠투데이, 2002년 1월 8일.

20) 스포츠투데이, 2002년 01월 08일.

21) 히피란 1967년 미국에서 나타난 반체제, 반도회, 반문명 등의 경향을 가진 청년집단으로 방랑적이고 물질을 도외시한 그들의 생활태도는 전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히피 룩이란 1970년대 자유와 평화를 부르짖으며 자연상태로의 회귀를 주장하였고 관습과 도덕을 무시했던 히피들에게 출발한 스타일이다. 남자의 장발과 수염, 낡은 청바지와 자연소재로 만들어진 옷, 꽃무늬 셔츠 등이 주요 아이템으로 인디언 풍 액세서리나 수공예 자수장식들이 포인트로 이용되기도 한다.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p.69.



〈그림 2〉 Emanuel Ungaro, 2001 S/S.



〈그림 3〉 Franck Sorbier, 2001 S/S.

피를 재해석한 네오 히피(Neo-hippie)²³⁾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색상과 깃털, 구슬, 자수 등의 장식과 일본의 기모노, 중국 자수, 인도의 사리 등이 합쳐진 에스닉 스타일의 경향을 함축하고 있다²⁴⁾. 인도의 사리를 연상하게 하는 Emanuel Ungaro의 패션 작품(그림 2)과 삼베소재의 변형으로 와이어와 깃털같은 이미지를 표현한 Frank Sorbier의 패션 작품(그림 3)의 경우가 바로 로맨틱 히피 룩으로 다문화주의 감각으로 표현되었다.

즉 새 천년 이후 패션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즐기려는 히피적인 분위기가 동양적이고 낯선 이미지의 에스닉 무드가 패션의 키워드가 되면서 실루엣은 편안하되 반도시적이고 낯선 이미지의 스타일이 첨단 유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우면서 이국적인 패션의 등장은 갖가지 사회현상에 따른 불안 심리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여성적이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레이어드와 엠파이어 스타일²⁵⁾을 가미하여 이국적인 분위기가 더해짐으로써 다문화주의 조형성이 더욱 부각되어 연출되고 있다. 그와 같은 이미지가 Christian Lacroix의 패션 작품(그림 4)에서 해체적 구성을 통한 에스닉한 감각이 표출되어 있다. 즉 가슴 사이 골이 보일 정도로 깊어 파인 엠파이어 라인의 목둘레선과 레이스, 퍼프 소매, 리플과 프릴 장식이 특징인 빅토리안풍 블라우스²⁶⁾가 최신 유행 코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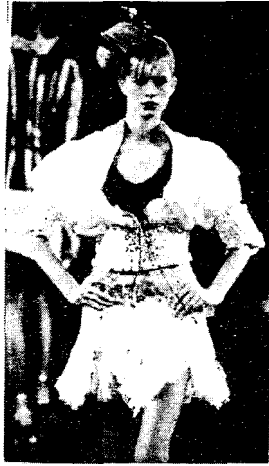
더욱이 새 천년의 로맨틱 히피 룩에는 구슬장식과 크리스탈 스팅글로 화려하게 장식된 아이템이 가미되면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자유로운 보헤미안적 특징은 장식과 스타일, 디자인, 소재

22) 'romantic'이라는 말은 프랑스어 'romant'에서 유래하였으며 로맨틱리즘은 일종의 문예상의 혁명을 의도한 운동이었다. 자연을 사랑하며 먼나라를 동경하는 등 현실의 이상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로맨틱리즘은 특정한 역사적 양식으로써의 개념을 초월하여 다른 시대에 같은 류의 경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안영길 외 (역), *미학사전* (서울: 미진사, 1990), pp.506-7.

23) 네오 히피는 1990년대 환경파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의 세계관에서 1960,70년대 히피 스타일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여성적인 우아한 느낌과 사이키델릭한 화려한 스타일로 나타났으나 새 천년에는 전쟁과 테러 등의 사회적 불안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http://www.fashion.com/theme/hippie/neo-h/n-hip.html>

24) 시티라이프, 2000년 6월 8일.

25) 엠파이어 스타일: 나폴레옹 제 1제정시대(1804~15)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초의 복식양식으로 고전주의 사조 속에서 그리스를 생각해 하는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이 특징이다. 부인복은 길게 파인 목둘레와 퍼프 소매 그리고 하이웨스트 라인의 드레스이며 남자복도 마찬가지로 가는 몸의 느낌을 주는 연미복에 긴 바지였다.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p.100.



〈그림 4〉 Chritian Lacroix, 2001 S/S.



〈그림 6〉 임현희, 2002.



〈그림 5〉 A. F. Vanlevorst, 2000/01 A/W.

등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마치 소재를 일부러 거칠게 찢거나 오려붙인 것 같은 방법, 핸드 페인팅, 아무렇게나 뿌린 듯한 반짝이와 큐빅, 앞뒷면 컬러톤이 다른 강렬한 패턴을 이용하는 등의 기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여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은 바로 에스닉한 분위기의 다문화주의 특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감각은 나일론 스타킹을 편직하여

풀오버로 표현한 A. F. Vanlevorst의 패션 작품(그림 5)과 끝마무리가 찢어낸 듯한 로맨틱한 분위기의 임현희의 패션 작품(그림 6)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새 천년의 패션흐름에 대해서 인터패션플레이닝의 이경희 정보팀장은 '테크놀로지 발달의 반작용으로 인간의 온정이 느껴지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는 경향이 생겨났다'면서 '이것은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선호와 심각한 것에 대한 배격, 하이테크놀로지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는 태도 등 인간적 감성에 호소하는 복고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²⁷⁾.

Christian Dior의 패션 작품(그림 7)에서는 히피의 소박함은 물론 로맨틱한 아이템들과 함께 디스코, 펑크, 에스닉한 스타일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특히 동심의 세계를 회상하게 하는 요소들을 패션에 도입함으로써 고전적 수공예 분위기의 이국적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승화된 로맨틱 히피 룩이다.

이와같이 로맨틱 히피 룩의 다문화주의 조형성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민속적 요소들이 서로 공유됨으로써 에스닉한 감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현대 패션을 통해서 고찰이 되었다.

26) 1900년대초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되살린 디자인이다.

27) news.naver.com/news-read.php?oldid=200101050000157002&s=5 연합뉴스, 2001, 01, 5.



〈그림 7〉 Christian Dior, 2001 S/S.



〈그림 8〉 Castelbajac, 2000/01 A/W.

2) 자연주의적 조형성

20세기말 세계적인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21세기의 옷차림을 예견했을 때 비닐소재의 의상이 주류를 이루거나 우주복 같은 이미지의 일상복이 일반화됨으로써 기계인간의 이미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새 천년 패션은 더욱 낙관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스타일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옷을 통하여 위안을 얻고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새 천년에 거는 희망과 긍정적인 미래관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인간미 넘치는 패션이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요인으로 간주된 것이다²⁸⁾.

인간복제와 테러, 경기침체 등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는 분위기와 함께 패션에도 자연주의가 등장하였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은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것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고 있다. 즉 물이나 바람, 돌, 바다, 꽃 등의 이미지가 여유로운 볼륨감, 프릴, 플리츠나 얇은 소재의 가벼움과 레이어드 등의 로맨틱 감각으로 의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더욱이 2002년 10월에 있었던 2003 S/S 서울 컬렉션이나 2002년 11

월에 있었던 부산 컬렉션에서도 로맨틱시즘의 지속적인 인기와 더불어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자연주의의 부상을 예견하였다²⁹⁾.

이것은 디자이너들의 현대 패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Castelbajac의 패션 작품(그림 8)에서는 대초원의 경관을 보는 듯한 야생 동물 문양을 Hanae Mori는 그녀의 주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나비 문양 등을 작품(그림 9)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새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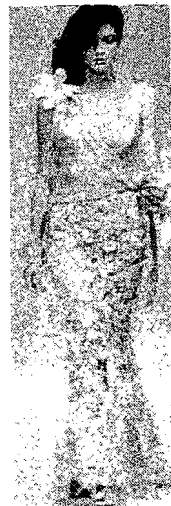
〈그림 9〉 Hanae Mori, 2001 S/S.

28) 한국경제, 2001년 1월 5일.

29) <http://fashionwide.co.kr/fashion/collection/in/seoul/2003ss.asp>
<http://fashionwide.co.kr/fashion/collection/in/pret/2003ss.asp>



〈그림 10〉 Junya Watanabe, 2000/01 A/W.



〈그림 12〉 Carven, 2001 S/S.



〈그림 11〉 Yoshiki Ishinuma, 2000/01 A/W.

년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좀더 밝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Junya Watanabe의 작품(그림 10) 역시 물결치는 듯한 러플과 프릴이 정교한 층을 형성하면서 시적(詩的) 세계의 이미지를 환상적인 로맨틱으로 표현하고 있다.

로맨틱 히피 룩에서 자연주의 조형성은 꽃보라를 느끼게 하는 Yoshiki Hishinuma의 작품(그림 11)이나 장미문양의 실크 드레스의 Carven의 작품(그림 12)처럼 의상에서 피팅(fitting)이나 커팅(cutting)으로써 바디라인을 강조함으로써 표출되고 하며 꽃 문양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자연주의적 요소가 되었다.

지앤코의 신명은 감사는 '21세기를 맞이한 패션계는 미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자연으로의 회귀를 적극 추구하고 있으며 하와이언 문양 등이 주목을 받게 된 요인은 바로 이러한 패션 트렌드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³⁰⁾. 따라서 열대풍의 하와이언 문양과 꽃무늬가 최신 유행 모드로 떠오르면서 Marini의 패션 작품(그림 13)에서처럼 남성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파인애플, 코코넛 팜과 열대나무의 잎사귀와 서핑 등의 하와이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모티브를 이용한 과감한 프린트의 셔츠뿐만 아니라 반바지, 손수건, 수영복 등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패션 상품에 대담하고 사실적인 프린트의 화사한 꽃이 만개했다. 특히 캐주얼웨어에서는 작은 꽃으로 뒤덮인 리버티 문양(liberty print)³¹⁾

30) 한국경제, 2001년 3월 20일.

31) 리버티 문양(liberty print)이란 영국 런던의 리버티사에서 개발한 직물의 전면을 덮는 잔 꽃무늬 문양의 날염을 말한다. 원래는 리버티사에서 생산되는 면이나 실크 직물만을 일컫었으나 지금은 잔 꽃무늬 문양을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림 13〉 Marni, 2001.



〈그림 14〉 Clare Corrigan, 2000/01 A/W.

을 많이 사용했는데, 리버티 문양은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살아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새 천년의 로맨틱한 패션 경향과 어울려 다채롭게 표현되었다. 재킷이나 원피스의 가슴에 꽃 코사주도 예전에는 작고 절제된 디자인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꽃송이가 크거나 작은 꽃송이를 다발로 묶어 놓은 듯 풍성해 보이는 것이 주류를 이루며 자연주의의 조형성이 표출되고 있다. Clare Corrigan의 작품

(그림 14)이 바로 영국의 전통 리버티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 자연주의 감각의 의상이다.

이처럼 새 천년의 로맨틱 히피 룩에서 자연주의 조형성은 의상의 실루엣이나 색상 그리고 소재 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명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인공미가 배제된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함으로써 좀 더 풍요롭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패션을 통해서도 공유하고자 하는 맥시멀리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로맨틱 스포츠 룩(Romantic Sports Look)

1) 다기능적 조형성

새 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 패션계의 또 하나 특징은 스포츠 룩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스포츠웨어의 한 요소나 디테일을 맞춤복이나 기성복에 접목시켜 고급스러우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스포티와 로맨틱을 멋지게 결합시킨 의상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캐주얼한 정장과 함께 세계 패션계에 불고 있는 스포츠 룩의 영향 역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 스포츠라인을 강조한 캐주얼은 국내 시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포티즘(sportism)³²⁾은 정통 스포츠웨어 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용되는 트렌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상반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부조화로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새로운 패션트렌드로 제시되면서 로맨틱 무드와 스포티한 느낌이 결합된 이른바 '로맨틱 스포츠 룩'이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의 공존을 통한 대부분 엉뚱한 요소와의 화려한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패션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파티에는 드레스나 정장, 운동할 때는 트레이닝복을 입어야 한다는 패션공식을 깨고, 이 두 가지 요소의 엉뚱한 결합에서 이러한 로맨틱 스포츠 룩을 보는 것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32) 새 천년의 스포티시즘은 기능적인 '스포츠'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느낌과 정신으로 스포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적이고 기능성위주의 스포츠웨어 느낌을 벗어나 로맨틱하고 여성스럽게, 그리고 도회적이며 실용적인 변화로 표현되었다. Fashionbiz, 2000년 4월, p. 218.

<http://www.icoordi.com/history50-4.htm> http://www.kuri365.com/women/women03_02_11.html



〈그림 21〉 이진윤, 2002.

〈그림 22〉 Seredin & Vasiliev, 2000/01 A/W.

덧붙여야 할 부분 그리고 주름을 잡아야 할 부분을 잘 조화시킨 의상으로 다기능적 조형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호경기에는 긴장감이 없는 옷차림이었다면 9.11테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안과 전쟁 가능성이라는 요소는 오히려 패션을 통해서 긴장되고 화려한 그리고 가볍고 로맨틱한 요소가 되어 표현되고 있다. 스포츠라는 의미가 단지 경쟁이나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서로 공유되면서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표출이 되었다. 이러한 의상의 전통적 하나만의 가능성이 해체된 로맨틱 스포츠 룩의 다기능적 조형성은 새 천년의 패션 코드인 맥시멀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미가 퓨전이라는 현상과 동일시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오류가 흔히 있는데, 퓨전의 재료는 사회가 흘러가며 공유하는 유행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늘 변하게 되는 것이다. 무언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섞어서 전혀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의 퓨전은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패션의 크로스오버 현상이 표출될 수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듀오 디자이너인 Seredine & Vasiliev의 패션 작품(그림 22)은 러시아 궁정을 생각나게 하는 장식과 현대적이고 만화적인 이미지가 공존함으로써 엉뚱하게도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이라는 크로스오버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패션의 특징은 화려하고 여성적인 로맨틱한 이미지, 나선적 이미지나 프셔적인 이미지가 애드립키너스



<그림 18> Issey Miyake, 2000/01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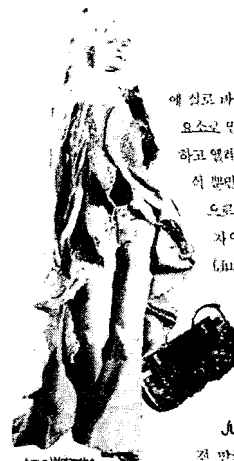


<그림 19> Masaki Mastushima, 2000/01 A/W.

18)과 Masaki Mastushima의 작품(그림 19)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디테일과 스포티한 구축적인 감각이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로맨틱 스포츠 룩의 다기능적 역

할이 내재되어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건강미를 만드는 진보의 한 형태이며 사회문화의 가치관으로 패션에서도 역시 진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름답게 차려입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의식이 새 천년 패션을 통해서 로맨틱 스포츠 룩을 형성하였고 따라서 청바지의 경우도 자유로운 허피의 열풍 속에 건강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표출해 내는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즉 핸드 크래프트(hand craft)³⁴⁾ 기법에 의한 핸드 프린팅을 하고 비즈를 다는 것 이외에도 손으로 가늘게 찢고 뿔아 구슬을 사이사이에 끼워 만든 술장식이나 누더기 천을 누빈 듯이 스티치로 처리하거나 워싱기법 등으로 색다른 맛을 선보이고 있다. Junya Watanabe의 패션 작품(그림 20)에서는 봉제선을 겉쪽으로 하는 등의 예술적인 요소로 멋있하고 심플한 데님을 더욱 화려하고 로맨틱 스포츠 룩의 다기능성을 느낄 수 있다. 파티 청바지³⁵⁾의 대표적 디자이너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이진윤의 작품(그림 21)의 경우도 찢어야 할 부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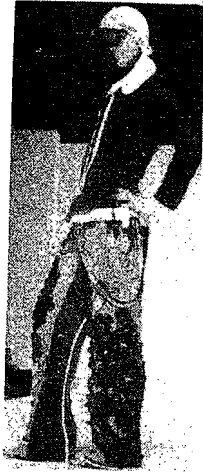


<그림 20> Junya Watanabe, 2002.

34) 핸드 크래프트란 직접 손으로 작업한 과정이 들어간 것으로 만든 사람의 손맛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장점으로 각자의 개성이 강해지고 남들과 차별되는 자기만의 것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핸드 크래프트 기법은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Fashionbiz, (2003. 1), pp.334-5.

35) 파티 청바지는 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캐주얼한 파티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의상으로 이진윤에 의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림 21〉 이진운, 2002.

덧붙여야 할 부분 그리고 주름을 잡아야 할 부분을 잘 조화시킨 의상으로 다기능적 조형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호경기에는 긴장감이 없는 옷차림이었다면 9.11테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불안과 전쟁 가능성이라는 요소는 오히려 패션을 통해서 긴장되고 화려한 그리고 가볍고 로맨틱한 요소가 되어 표현되고 있다. 스포츠라는 의미가 단지 경쟁이나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서로 공유되면서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표출이 되었다. 이러한 의상의 전통적 하나만의 기능성이 해체된 로맨틱 스포츠 룩의 다기능적 조형성은 새 천년의 패션 코드인 맥시멀리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크로스오버(Crossover)³⁶⁾ 조형성

로맨틱 스포츠 룩을 형성하는 또 다른 특성으로 크로스오버 조형성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2000년 이후의 트렌드는 더욱 다양한 컬러와 이미지들의 자유분방함 속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존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때로는 크로스오버란



〈그림 22〉 Seredin & Vasiliev, 2000/01 A/W.

의미가 퓨전이라는 현상과 동일시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오류가 흔히 있는데, 퓨전의 재료는 사회가 흘러가며 공유하는 유행이나 시대 분위기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다. 무언가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섞어서 전혀 새로운 묘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의 퓨전은 현 시대를 잘 반영하는 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패션의 크로스오버 현상이 표출될 수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듀오 디자이너인 Seredine & Vasiliev의 패션 작품(그림 22)은 러시아 궁정을 생각나게 하는 장식과 현대적이고 만화적인 이미지가 공존함으로써 엉뚱하게도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이라는 크로스오버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패션의 특징은 화려하고 여성적인 로맨틱한 이미지, 남성적 이미지나 중성적인 이미지의 앤드로지너스(androgyneous) 등의 유행요소들이 들 또는 셋씩 짝지어 함께 선보인다는 사실이다.

Givenchy의 패션 작품(그림 23)은 얇고 부드러운 로맨틱한 소재의 상의에서 느껴지는 여성스러움과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포티한 감각의 팬츠의 공존을 통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크로스오버 현상을 볼 수

36) 크로스오버란 원래 음악적인 용어로서 '재즈와 타 장르와의 혼합'이라는 사전적 정의의 크로스오버뮤직에서 나온 용어로서 재즈와 국악과의 혼합이라든지 재즈와 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다 혼합한다고 크로스오버 뮤직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음악 특성이 고유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 3의 음악이 창조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패션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크로스오버 조형성이라고 고찰할 수 있다.

<http://210.9.201.1/etseoul/cmp/theme2000/fashion/39crossoverfusion.htm>



〈그림 23〉 Givenchy, 2000/01 A/W.



〈그림 24〉 Louis Feraud, 2001 S/S.

있으며 Louis Feraud의 작품(그림 24)의 경우 역시 상의의 로맨틱한 이미지와 비대칭적이고 콜라주처럼 느껴지는 바지의 결합 역시 성적 감각의 이분법적 경계를 해체시켜 버린 크로스오버 현상으로 고찰된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이라는 로맨틱 스포츠

룩의 크로스오버 현상은 현대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의 감각의 한 영역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화는 패션에 있어서 일정한 법칙나 한계가 없다. 더욱이 여성복에 남성적인 요소와 장식이 감각적으로 서로 함께 어울린 스타일이 점점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새 천년 이후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 가진 무미 건조하고 대량생산적인 면이 아니라 지나버린 과거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원한다. 인간미와 함께 중시되는 것은 시간으로 현대인들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축적된 역사를 소유하고 싶어하며 가장 과거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채롭게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는 새로움과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패션은 항상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내었는데, 즉 상반되는 것끼리의 혼합이 이러한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등장했다.

Julien Macdonald의 패션 작품(그림 25)은 사이키델릭(psychedelic)³⁷⁾한 색상의 소재와 밑단의 술장식은 60년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로맨틱한 요소이지만 의상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캐주얼하고 활동적이며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현대적인 젊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간을 초월한 고전과 현대의 이분법의 경계가 해체된 크로스오버 조형성으로 볼



〈그림 25〉 Julien Macdonald, 2000/01 A/W.

37) 그리스어의 psuhe(정신)과 delos(눈에 보인다)의 합성어인 사이키델릭은 환각상태를 의미하는데, 1967년 미국의 히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패션에서의 사이키델릭 경향은 프린트 무늬의 경우에는 동상적인 무늬이거나 추상적인 무늬가 주를 이루고 색상은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환상적이고 형광색상 등이 반영되고 있다.



〈그림 26〉 Guy Laroche, 2003 S/S.

수 있다. Guy Laroche의 작품(그림 26)의 경우도 고전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크로스오버 조형성이 표현되어 있다. 새 천년 이후 패션에 있어서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조깅복이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데, 험령하고 멋없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도 세심하게 연구된 조깅복이 디자이너들의 패션 작품에 다양하게 창조되고 변형되어 등장하고 있다³⁸⁾. Guy Laroche에서는 80년대 조깅복의 험령하고 멋없던 요소가 부드럽고 편안한 로맨틱한 소재와 실루엣으로 재창조된 고전과 현대로 공유되어 있다. 최근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표현된 많은 의상들이 아이디어와 영감을 스포츠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광택이 있고 투명한 소재나 스폰지, 벨벳 소재 등이 과거의 스포츠웨어 이미지로 선보이고 있다.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인 O'2nd(그림 27)의 경우도 고전과 현대의 크로스오버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디테일과 장식적인 요소들의 과거회귀적인 이미지와 스포츠 웨어를 연상시키는 캐주얼하고 강한 느낌을 부여하는 선처리는 로맨틱 스포츠 룩의 크로스오버 조형성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여성성과 남성성, 고전과 현대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논리를 탈피함으로써 분명한 주제 하나가 전체 패션계를 이끌었던 여느 때와는 다르다. 서



〈그림 27〉 O'2nd 2002.

로 다른 스타일 또는 다른 소재의 옷과 소품을 이리 저리 뒤섞고 또 함께 어울려 입음으로써 형식보다는 멋과 편리함, 즐거움을 추구하고 전통의 권위보다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전의 크로스오버 조형성이 반항과 해체, 파괴를 전제로 했다면 요즘에는 창조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패션 코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로맨틱 스포츠 룩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오버 조형성은 탈이분법적인 특성으로써 맥시멀리즘의 시대적 배경이 된 퓨전 문화나 보보스족의 등장 등과 그 정서적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IV. 결 론

신소비계층의 형성이라는 새 천년 소비 의식은 20세기말과 차별화되는 특징으로 부각되면서 패션도 단순한 유행 상품이 아니라 문화코드로 인식되었다. 특히 패션에는 최첨단적 요소들과 과거 회귀적인 상반되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맥시멀리즘 양식이 형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맥시멀리즘이 형성될 수 있었던 새 천년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그 요인을 분석해보고 현대 패션에서 그 영향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

38) Fashionbiz, (2003. 1), p.265.

있는지 고찰·분석하였다. 따라서 맥시멀리즘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패션 속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맥시멀리즘은 글로벌리즘, 퓨전 문화, 보보스족의 등장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맥시멀리즘은 세계통합주의와 지역중심주의, 동질화와 이질화라는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서로의 장점을 수용하는 개념으로써 새 천년의 문화코드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문화 예술의 장르들이 혼합, 변화되는 퓨전 문화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미래를 주도할 신소비 집단들의 디자인 트렌드로 부상되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이 하나로 모여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었다. 부르주아의 야망과 성공, 보헤미안의 반항과 창조성이라는 이중적 성향을 가진 디지털 시대의 신흥 귀족을 일컫는 보보스족들은 대중문화나 소비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개성과 패션철학은 새 천년 패션에서 사회·문화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하에서 패션에서는 새 천년 들어 전쟁과 불황이라는 우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고자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의 갈등과 이중적 이분 구도로 형성된 냉소적 분위기를 탈피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공존시킴으로써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새 천년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은 로맨틱 히피 룩과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나타났다. 첫째, 로맨틱 히피 룩은 1) 전 세계적인 민속적 요소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무엇보다도 에스닉한 감각의 다문화주의 조형성과 2) 인공미가 배제된 순수한 자연미를 추구함으로써 패션 디자이너들은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것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아 새천년 패션을 통해 자연주의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둘째, 로맨틱 스포츠 룩은 1) 스포츠라는 의미가 단지 경쟁이나 신체적 움직임이라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여성스러움과 로맨틱한 요소가 서로 공유되면서 의상의 전통적 유일한 기능성이 해체된 다기능적 조형성과 2) 여성성과 남성성, 고전과 현대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의 논리를 탈피함으로써 분명한 주제 하나가 전체 패션계를 이끌었던 여느 때와는 이전의 크로스오버 조형성이 반항과 해체, 파괴를 전제로 했

다면 요즘에는 창조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패션 코드로 등장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스타일 또는 다른 소재의 옷과 소품을 이리저리 뒤섞고 또 함께 어울려 입음으로써 탈이분법적인 크로스오버 조형성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결과 로맨틱 히피 룩과 로맨틱 스포츠 룩의 조형적 표현은 패션 작품에서 정확하게 경계지어 나타나는 조형성이 아니라 이들 특성들이 서로 동등하게 공존하거나 주된 특성 속에 다른 것들이 종속적으로 어우러져 표출됨을 고찰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맥시멀리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패션에서 꼭 필요요소로서의 도입이 아닌 존재함으로써, 좀 더 부가함으로써 풍요로움과 빛이 나는 요소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맥시멀리즘 양식만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미가 배제된 순수한 장식 요소들은 풍요로움, 안락감, 안정감, 따뜻함, 편안함, 꿈, 환상과 같은 로맨틱한 단어들을 떠올리게 하며 글로벌리즘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코드와 더불어 현대인에게 내재된 정신적인 철학이 복식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현대 패션에서의 로맨틱리즘은 다양한 표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의 객관성 있는 분석은 유사한 연구 분야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02년, 7월 28일.
- 국민일보, 2002년, 8월 4일.
- 국민일보, 전문가들이 말하는 패션 경향, 2002. 2. 16.
- 김옥동,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http://www.kcaf.or.kr/zine/artspaper92-01/19920103.htm>
- 미술-다양한 트렌드 선보인 한 해, <http://210.95.205.99/yearbook/2001/misul/A1-1-5.htm>
- 전승규, 단일성에서 퓨전과 크로스오버, 동아일보, 2000년 11월 20일.
- Fashionbiz, 2001년 5월, p.94.
- 일간스포츠, 2001년 10월 29일.
- 중앙일보, 2002년 1월 17일.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8.
-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 스포츠투데이, 2002년 1월 8일.

- 스포츠투데이, 2002년 1월 08일.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안영길 외 역 (1990). *미학사전*, 서울: 미진사.
 사티라이프, 2000년 6월 8일.
 文化出版局, 服飾辭典, 1990.
 news.naver.com/news-read.php?oldid=200101050000157002
 &s=5 연합뉴스, 2001, 01, 5.
 한국경제, 2001년 1월 5일.
 한국경제, 2001년 3월 20일.
 Fashionbiz, 2000년 4월.
 스포츠투데이, 2000년 11월 23일.
 Fashionbiz, 2003년 1월.
<http://style.chosun.com/site/data/html-dir/2001/02/01>
<http://canada.hammir.com/canada/intro/multiculture.php>
<http://www.fashion.com/theme/hippie/neo-h/neo-hip.html>
<http://fashionwide.co.kr/fashion/collection/in/seoul/2003ss.asp>
 p
<http://fashionwide.co.kr/fashion/collection/in/pret/2003ss.asp>
<http://www.icoordi.com/history50-4.htm>
http://www.kuri365.com/women/women03_02_11.html
<http://210.9.201.1/etseoul/cmp/theme2000/fashion/39crossoverfusion.htm>
<http://100lycos.co.kr/entry/38/765038.asp?where=category&drw=030503002>
<http://news.yahoo.co.kr/headlines/en/20020815/joyo2002081571731.html>